

예수님의 도움으로 관계를 구축하기

Jane DeRose-Bamman, OFS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20 NAB

관계는 2022-2025 년

국가형제회 초점의 세 번째 측면입니다.

복음과 회칙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8 장 20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분도 거기 계십니다- 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프란치스칸 가족과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8 월 말,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 (OFS) 회칙 제 26 조와 회헌 제 92-95 조에 따라 형제적 및 사목적 방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형제회인 국제 형제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국제적인 가족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몇 달 동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초기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방문을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와 주제에 부합하는 우리의 작업 영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 집행위원회(NEC)는 지역 집행위원회(REC)와의 관계를 구축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일부 REC 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가혹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노골적인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변창하기 쉽습니다. 관계가 약간 긴장될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종차별적인 태도나 발언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대화는 우리의 형제적 삶의 방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OFS 회칙 7 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매일 지속적인 회개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침해 행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평의회 구성원을 위해 그들은 마태복음 18 장(15-17 절)에서 앞서 언급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또한 회헌 56 조 2 항과 58 조 2 항에 명시된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평의원이나 다음 상위 평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 프란치스칸 가족 내부 또는 외부에서 (OFS 회칙 1, 2, 12, 17, 19 조),
-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OFS 회칙 5, 6, 8 조),
- 우리 지역 사회의 사람들과 함께 (OFS 회칙 13, 14, 15, 16 조) 또는
- 창조의 인간이 아닌 부분과 함께 (OFS 회칙 11, 18 조).

나는 하느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쁨의 기회를 받아들이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듣고 분별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